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1만원! 4/20 집중 문화제

본격 대선 레이스 시작, 노동자의 목소리 낸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15명에 달하는 대통령 후보가 등록했지만, 누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말로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적을 보면 믿기 어려운 후보도 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금속노조도 대선기간 동안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창구단일화 폐기! 노조파괴 금지! 최저임금 1만원!

지부는 올해 투쟁목표를 노조파괴 금지! 노조할 권리 보장! 임금안정성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로 결정했다. 지부 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제대로 된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소수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부는 창구단일화를 완전히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함께 현장에 임금동결/삭감이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쟁취를 위해 지부는 매주 월, 목 선전전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선 기간 여론화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대선기간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퍼지도록 해서 노조법 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4/20 문화제에 최대한 함께 하자

지부는 ‘최저임금 209실천단’ 과 함께 20일 행진 및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할 권리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활동해온 209실천단 활동과 더불어 지부, 금속노조의 요구를 담아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금속노조의 요구를 쟁점화하기 위한 전국순회투쟁의 일환으로 열린다. 대선기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20일 문화제에 최대한 많이 함께 하자!

209실천단 행진 함께해요!

올리자 1만원 모이자 209

다양하고 즐겁게 행동하고 있는 209실천단! 4월 19일과 20일 충북에서 최저임금1만원, 노조할 권리를 알리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209실천단과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과 즐겁게 외치고 함께 걸어요!

**4월19일-20일
209실천단 행진에
함께해요!**

일시
1일차: 4월 19일(수) 오후 4시
2일차: 4월 20일(목) 오후 4시

행진
1일차: 충북대 → 철당간
2일차: 청주대 → 성안길 롯데시네마
* 2일차 6시 성안길에서 진행하는 문화제도 함께해요!

* 이번주 일정 *

■ 지부 실천사업

4/17(월) 11:00 충북 경충 앞

■ 최저임금 209만원 동시다발 1인 시위

4/18(화) 12:00 각 사업장

■ 금속노조 쟁점화사업 전국순회투쟁 문화제

4/20(목) 16:00

청주대 앞 → 성안길 롯데시네마